 지식사회

1. 지식사회의 도래

지식사회는 왜 도래했는가?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되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답은 인간이 너무 올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큰 변혁을 초래하는데 토대가 된것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다.

* 1. 노동의 공급

인간의 수명이 60세에서 80세로 늘어나자 사람들은 15세기에 육체노동직종에 취직하는 것보다 대학을 졸업하고 25세에 지식근로직종에 취지하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2차대전 이후 '교육 폭발'현상은 노동의 공급을 급격히 바꾸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직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이후 세계 경제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는 육체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식노동작업의 적절한 공급, 또는 지식수준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불하는 직업의 공급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지식노동이 가능한 노동자의 공급 변화로 세계는 직업 자체가 그것을 요구하든 않든 간에 순수한 의미의 지식근로직종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식근로자업은 고학력자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지식산업이 있었기에 지식근로자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지식근로자가 있었기에 지식산업이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지식산업의 등장으로 인간은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적인 삶과 행복을 꿈꿀 수 있었다.

1. 현재 사회의 모습
	1. 과거가 없는 사회

문명이 발전하면서 힘든 일은 기계가 하고 사람은 창조적인 일을 하며 인생을 즐길줄 알았는데, 손발이 필요없어지고 머리는 빙빙돌고 몸은 쉴곳이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피터 드러커에 의하면 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한다.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은 필요가 없고 언제나 미래만이 있으니, 무엇을 쌓아놓고 곶감 빼먹듯이 나머지 생을 편하게 사는 것이 사라졌다.

지식혁명, 즉 경영혁명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지식이 탄생한고 있다. 그리고 배우고 축적된 지식은 빠르게 소멸되니 더 빠르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래서 머리로 먹고사는 사회는 몸으로 먹고 사는 사회보다 더 불안하고 힘들다.

* 1. 단절의 시대

'지식의 지위와 권력의 변화'에 따른 단절의 시대가 온 것 같다. 이 모든 단절의 근본동력은 지식이 지식자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한 것이다.

* + 노동의 단절

경제의 기반이 육체작업에서 지식작업으로, 사회적 지출의 중점을 눈에 보이는 재화에서 지식으로 바뀌었다. 지식이 사회의 중심에, 그리고 경제와 사회활동의 기초로 등장하면서 지식의 역할, 지식의 으미, 지식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 + 조직의 단절

과거에는 상하관계가 뚜렷한 조직적 권력기관으로서 정부가 유일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부부터 새로운 기관들이 출현했다. 새로운 기관들은 각각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병원, 기업, 대학 심지어 정부기관조차도 상하관계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다양화된 조직들의 유기체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각 조직을 최대한 효율성 있게 유지하는 것은 토치하는 정부밖에 없다.

* + 산업기술의 단절

농업과 철강, 자동차와 같이 19세기 초 발명품을 대량생산하던 산업들은 더 이상 선진국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원동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체할 만한 산업으로 정보산업, 해양산업, 신물질개발산업 및 거대도시에서 생성될 새로운 산업이 있다. 이 변화와 혁신의 시대는 '지식기반산업'이 주도를 잡게 될 것이다.

* + 경제이론의 단절

지금까지 경제이론은 현재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출발점은 그것을 미래의 판단근거로 삼았다. 이것은 미래의 경제구조가 현재의 경제구조와 동일하다는 전제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가설인데 이 가설에는 혁신/기술/지식이 빠져있다. 또한 국제 경제학의 기본 이론인 비교우위론의 가정인 토지/노동/자본의 고정성 또한 노동/자본의 이동이 많아짐에 따라 타당성을 잃었다.

이 모든 한계를 넘어선 미시경제, 거시경제 그리고 세계경제를 하나의 '경제적 장'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제이론이 필요하다.

* 1. 지식 근로자의 위기

지식사회의 등장으로 지식인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활동영역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껏 사람들이 경험했던 '정당한 하루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하루의 임금'이 아니라 '외외적인 하루의 작업에 대한 예외적인 임금'을 기대하는 힘겨운 프리랜서 내지는 비정규직이 일상화된 사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식이 육체노동으로 부터 인간을 해방했지만 오히려 더 긴 시간 정신노동의 스트레스를 불렀다. 지식이 인간을 획일적으로 일원화했던 것에서 벗어났게 했지만 다원화된 조직의 최대 성과를 위해 언제든지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불러들였다. 지식이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 오래 된 욕구와 필요사항을 충족시켰지만 기대와 욕망의 수준을 넓힘으로써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게 되었다. 지식은 기존의 경제활동을 변경시켰지만, 지식인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다.

비개성적인 대량상산 시대로부터 개선을 뚜렷이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지만 지식이 작업 그리고 성과의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은 지식인에게 책임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부과된 책임에 비하여 그들이 받는 급부는 이전에 비하여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후퇴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지식사회는 위기로 빠지게 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으라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식 근로자의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데다가, 이들이 활수 있는 상당부분이 컴퓨터로 자동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IT산업이 불어닥친 2000년초반에 모든 사람들은 신기술이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겠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거라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틀린 것으로 판명났다. 실질적인 일자리는 정리해고와 자동화로 줄어들고 있지만 이사회는 여전히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것으로 부족하여 대학원을 졸업하고 MBA를 따야만 지식사회에 겨우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지식사회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식사회가 발전하고 지식인이 늘어날수록 지식사회에서 필요한 정도의 지식은 높아져가고 그 지식이 필요한 기간은 더욱 더 짧아져 가지만 일자리를 더 줄어드는 사회가 되었다.